

大學 및 學科選擇 決定過程과 學業適應과의 關係

許 鐵 洙*

目 次

- 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II. 進路選擇·決定이 學業適應에 미치는 影響
- III. 研究方法
- IV. 進路選擇·決定 過程에 대한 實態分析
- V. 大學 및 學科에 대한 만족도 分析
- VI. 要約·結論 및 提言

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를 추구해 나갈 때 비로소 自我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학교와 사회 또한 개인의 適性和 能力에 따른 進路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教育體制를 구축하여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여 나갈 수 있는 教育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教育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課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教育體制는 학생들의 진로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構造나 機能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여 많은 教育的·社會的 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상위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입시 경쟁이 어느 나라보

“이 論文은 1987年度 文教部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學生生活研究所 專門委員 (師範大學 副教授)

다도 치열하여 매년 40 만명 정도가 탈락하고 있다. 또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거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선택한 전공과정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거나 방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리고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40%도 채 못되어 극히 저조한 실정인데 이것도 쉽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大學教育 인구가 넘쳐 졸업후 취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實業系 高校를 기피하는 경향은 한층 심화됨으로써 技能人力의 부족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남자 실업계 고등학교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정원이 미달되고 있으며 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서도 졸업후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問題狀況은 우리의 教育體制가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별하여 적성과 능력에 따라 進路를 확립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서둘러 해결해야 할 課題로 부각하고 있다.¹⁾

매년 대학입시철만 되면 진학을 하고자하는 高校生들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망하여야 할 것인가를 망설이면서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매우 안타까와 하면서 자신감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기의 일생을 결정하는 순간에 접하는 학생들은 소신있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흥미나 인성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점수에 따른 눈치와 배짱으로 大學과 專攻學科를 지원하려는 경향은 그들이 學校나 社會에 올바르게 적응하는 데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자아내게 될 것이다. 즉, 자기의 신문제를 계획적이고도 신중하게 생각함이 없이 순간적인 결정에 맡긴다면, 실령 대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족스럽게 학업을 성취하기가 어렵게 되며 아울러 專攻學科에 대한 불만도 높아질 것이다. 불만이 쌓이면 학습의욕을 떨쳐버리는 경향이 있고 학습의욕의 저하는 學習成就動機에 영향을 주어 負的動機를 형성하게 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의 흥미와 의욕의 저하는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학습에 대한 주의집중이나 학습수행을 방해하여 학습성취가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만은 아닐 지라도 근래에 大學教育에 대한 評價가 매우 부정적이며 회의적이다.

우선 인재양성이 무엇을 의미하며, 한국의 대학들이 인재양성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²⁾ 高等教育의 양적 팽창의 어느 정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문의 수월성을 성취한 것 같으나 사실은 대학이 학문에 대한 知覺도 없는 대중화만 초래하여 지도적 인격이나 産業化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高級人力

1) 崔榮杓外, "진로교육체제 발전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7, p.8.

2) 한준상, "한국대학교육의 회생 -대학교육한계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서울: 문음사, 1983, p.82.

의 공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³⁾ 尹正一⁴⁾도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단계”라고 지적하였고, 李圭浩⁵⁾ 역시 “한국의 대학은 학문의 전당은 물론 아니고, 대중의 교양교육을 위한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학교도 아니다. 교육의 학문적 수준과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환경과 생활조건이 서로 작용해서 한국대학들을 더욱 침체상태에 빠뜨렸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大學教育의 실패와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고 있는 근원적 원인들은 무엇일까? 물론 그 해답은 간단하지가 않겠으나, 李炯得·金濼塚⁶⁾는 대학에서 학업실패의 주요원인을 ① 情緒的 未成熟, ② 부적절한 준비, ③ 부적절한 학습습관, ④ 무질서한 세کل활동 등 4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면서 學業에 실패하고 있는 大學生들의 원인은 心理的 特性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大學과 專攻學科를 선택·결정함에 있어서, 부모들의 과잉 기대와 인기정도, 그리고 성적에 의한 영향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생 자신은 결국 적성에도 맞지 않고 포부에도 관계없는 분야에서 공부하게 되어 불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보내게 되고, 졸업후에도 마음에 없는 직업을 택함으로써 불만스러운 평생을 보내는 바람직하지 못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생들의 대학 및 전공학과와의 선택·결정에 따른 시기와 동기, 영향요소에 따라 大學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대학생활의 만족, 불만족상태를 파악해 보고자 함에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 가치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또 전공학과 선정에 직업선정과의 관련성을 신중하게 고려함이 없이 전문적 학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不適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결정 경향을 파악하여 보고 아울러 자신이 선택·결정한 대학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평가하여 고등학교에서의 진학지도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대학 학생생활지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문선재, “고등교육기관 목적의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4) 윤정일,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및 질관리”, 한국교육개발원, 1979.

5) 이규호, “대학의 이념과 미래의 적응”, 「학생생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70, p.74.

6) 李炯得·金濼塚, “학업부진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학습습관의 변용 및 자기통제력의 발달이 그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제명대학 학생지도연구소, 「지도상담」, 1973, pp.98 ~ 100.

Ⅱ. 進路選擇·決定이 學業適應에 미치는 影響

1. 進路選擇·결정의 意義 및 重要性

産業社會의 發達에 따른 직업의 專門化, 多樣化는 학과선택과 직업선택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전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學校教育에 있어 進路指導의 문제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직업세계는 매우 다양하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그 선택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體系의인 情報가 요구된다는 개인 외적특성 외에도 學科나 職業이 단순히 취미나 소득원의 차원을 넘어 개인 자신의 潛在能力과 社會的 價値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삶의 場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직업을 준비시키기 위해 얼마나 공헌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학교가 象牙塔的 概念을 뛰어넘어 직업준비의 중요한 場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제 부정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직업이란 개인에게 있어서 생계유지의 방편이요, 自我實現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것의 선정은 개인의 일생의 質을 결정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進路指導의 선구자 역할을 한 Parsons가 개인이 진로를 선택·결정함에 있어서 ① 개인을 이해하고, ② 직업을 탐색하여, ③ 개인에 알맞은 올바른 직업을 연결시켜 주는 세 단계의 과정⁷⁾을 제시한 이래 진로선택·결정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되어 왔다.

Super⁸⁾는 “職業世界에 대한 자기 자신이 가장 적절하고 통합된 자기 역할을 發見·受容하여 자기 만족은 물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는 과정”임을 밝히고 이는 자기 자신과 職業과의 단순한 結合이 아니라 進路發達에 따른 人格的 統一性을 중요시하고 있다.

Blocher와 Miller⁹⁾는 “진로선택·결정은 개인적 학습경험과 사회적 과정의 발전에 대한 人間理解와 지식을 적용하는 데 관련된 넓은 社會的 機能”으로 정의하여 그 목적은 일을 통하여 자신이 만족하고 사회적 공헌을 위한 人間潛在力의 최대한의 실현을 촉진시키는 데 두고 있다.

Ginzberg¹⁰⁾는 진로선택을 “興味, 能力, 價値와 기회 사이의 妥協의 수단”으로 보고 있

7) Joseph S. Zaccaria, "Theories of Occupational Choice and Vocational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1970, p.26.

8) Donald E. Super,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7, p.168.

9) Lee E. Isaacson, "Career Information in Counseling and Teaching"(3rd ed.),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7, p.22.

10) Eli Ginzberg,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Vol. 30, No.8, 1952, p.491.

으며, 아울러 Kuder¹¹⁾는 “흥미를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意思決定의 手段”으로 보고 있다. Hoppock¹²⁾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또한 Holland¹³⁾는 “진로선택은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遺産的 素質이 여러 가지 문화적·개인적인 힘과 서로 이루어진 산물로서 그의 適應方向의 체계를 만족시키는 場을 구하는 것”이라 하여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日本에서 사용하고 있는 進路指導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¹⁴⁾

“진로지도는 個人資料, 職業·學校情報, 經驗 및 相談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가 장래의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을 하여 進學 또는 就職해서 더욱 그 후의 생활에까지 보다 잘 適應하고 진보하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교사가 組織的·繼續적으로 지도·조력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원만한 適應과 능력신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자신이 선택·결정한 진로는 개인의 일생의 길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만족, 불만족이 적응, 부적응의 1차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력활용면에 있어서나, 사회발전을 위한 효용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進路選擇의 段階와 意思決定 過程

‘選擇’과 ‘決定’이 어느 것이 상·하위목표이며, 過程的 見解인가 아니면 結果的 見解인가에 대한 異見¹⁵⁾이 있으나 선택과 결정은 연속적 과정으로서 선택이 결정보다 하위목표가 되며 아울러 선택은 과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며, 결정은 결과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개인의 능력, 흥미, 가치가 직업세계의 직업적 기회와 바로 연결될 때 意思決定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연결이 성취되면 개인의 진로선택의 문제가 해결된다¹⁷⁾는 기본적 가정을 전제로 하는 特性·要因理論은 ① 진로선택은 일회적이며, ② 개인에게 적합한 최적 직업은 단

11) Frederic Kuder, "Occupational Choice,"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Inc., 1977, p.2.

12) Lee E. Isaacson, op. cit., p.33.

13) 洪基亨, 李承雨, "進路指導" 서울: 教育出版社, 1976, p.65.

14) 李炯鍾, "進路指導論", 서울: 教壇社, 1967, p.2.

15) J. C. Lee,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of University Students as related to Career Matur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Florida, Michigan: The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87, pp.11 ~ 12.

16) 許濂珠, "高校生の 進路選擇과 決定의 合理的 方案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學生生活研究], 제 8 집, 1986, p.36.

17) Robert C. Reardon, et al., "Facilitating Career Development", Illinois: Charles Thomas Publisher, 1975, p.19.

하나 뿐이고, ③ 그 선택의 과정은 상당히 인지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토대로 한다. 또, 개인의 특성인 興味, 技能, 人性的 特徵은 유일하게 조직된 형태이며, 그 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어서 진로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므로 特性·要因理論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適性, 知能, 興味, 性格 등과 같은 특성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 심리검사를 통하여 알아내고, 직업에서 요구되는 개개의 특성을 量的인 지표로써 분석·측정하여 개인과 진로를 짝지어 주는 접근 방법이다. 이때, 직업선택에 대한 타당성의 기준은 개인이 지닌 特性要因이 그 진로에 성공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과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에 근거를 둔다.¹⁸⁾

意思決定理論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선택 가능한 여러 직업 중에서 자신의 투자가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요지이다.¹⁹⁾ 개인은 선택과 행동에 대한 가능한 한 여러 代案을 가지며, 각 대안들을 평가하여 최대의 가치가 기대된 대안을 선택한다. 意思決定理論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직업세계에 대한 바른 예측을 돕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 중시되어 價値判斷의 思考 및 自我指向性이 주된 문제가 된다.

이상과 같은 理論的 根據에서 볼 때 장기간에 걸친 인간의 직업적 발달을 도외시키고 있으며, 인간의 제 특성 변인간의 相互 力動性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理論들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기보다는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發達理論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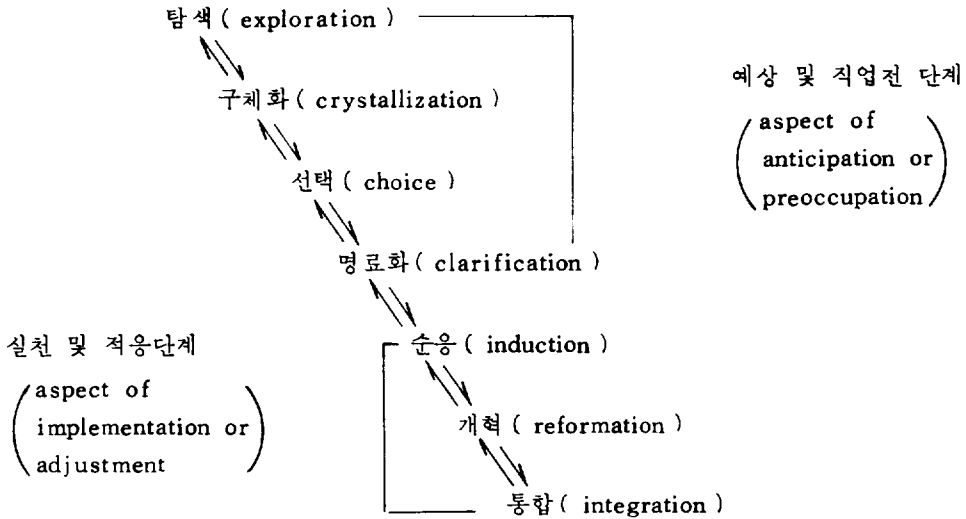
Ginzberg, Axelrad와 Herma 등은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發達的 要素를 연구하기 위해 11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職業行動에 관련된 進路選擇 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 要素를 발견하였다.²⁰⁾ ① 진로선택은 장기간의 과정으로서 전생애를 통한 과정이고, ② 그 과정은 반복될 수 없는 불반복성을 지니며, ③ 개인이 이상적으로 指向하고 있는 것과 실제적인 가능성과는 궁극적으로 타협에 의해 이루어지며, ④ 그 全體過程은 일련의 단계나 시기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진로선택은 1회적인 행위 또는 단일결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繼續的 意思決定의 개념으로서

18) 장석민의,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1986, pp.19~20.

19) 상계서, p.20.

20) Lee E. Isaacson, "Career Information in Counseling and Teaching",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7, pp.33~37.

각 결정은 그 다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Tiedeman 과 O'Hara 는 진로의 선택을 意思決定過程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이 職業同一視의 발달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사결정의 力動性和 단계를 다음과 같이 圖式化하고 있다.²¹⁾



[圖 II - 1] Tiedeman 과 O'Hara 의 意思決定過程

3. 進路類型과 學業適應과의 關係

學生의 진로문제에 관한 학습의 기본적 취지는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探索·發見하고 이를 개발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에 대해 포부를 갖고 이의 실현을 위해 계획·준비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올바른 진로선택과 결정을 함으로써 개개인이 자기가 선택·결정한 전공학과와 직업에 대하여 소속감과 사명감 및 애착심을 갖고 학교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진로선택·결정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은 누구나 학교교육을 통한 전공학습과정이나, 학교교육을 이수한 후 직업세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안정된 생활을 추구한다. 직업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개인은 진로결정 결과의 유용성과 가능성을 예측하여 신중한 진로결정을 시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학교교육은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학생 역

21) Zaccaria, op.cit., p.48.

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및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여 학교생활에서나 직업생활에서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고 포부에도 관계없는 분야에서 공부하게 되고 졸업후에도 마음에 없는 직업을 택함으로써 불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²²⁾

교육을 통하여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무시한 대학과 전공분야를 결정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객관적인 정보도 없이 우발적으로 직업을 택한다면, 전공학문에 식음치 못하여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보편적 현상이라면 이런 현상을 教育過程의 전체적 맥락에서 본다면, 불만족-부적응-학력의 저하는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 진다.

학생들이 수립하고 시행했던 進路計劃의 體系性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진로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²³⁾

하나는 안정된 진로유형 (stable career pattern) 으로서, 안정된 진로유형에 속한 개인은 진로선택·결정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며 목표지향적이다. 또한 자신의 진로결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집단과의 밀접한 교류를 갖는다. 따라서 비교적 학업 및 직업 성취도가 높으며 自我概念이 매우 명확한 경우가 많게 된다.

다른 하나는 불안정한 진로유형 (unstable career pattern) 으로서, 이 유형에 속한 개인은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의식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진로선택·결정도 매우 非體系의이며 진로계획과 결정간의 차이가 크다. 또한 대부분 진로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다양한 정보수집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진로유형에 관심을 가지며, 이와 같은 불안정한 진로유형이 대학에서 學業適應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大學教育의 理念과 目標를 보면, 교육법 제 108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념과 목표는 대학의 존재 이유 즉, 당위성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기 실현을 통한 지도자로서의 人格形成教育의 본질적인 價値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은 理論的인 측면과 實用的인 應用的 두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어 대학교육에서의 學問性 (academism) 과 職業性 (vocationalism) 의 調和를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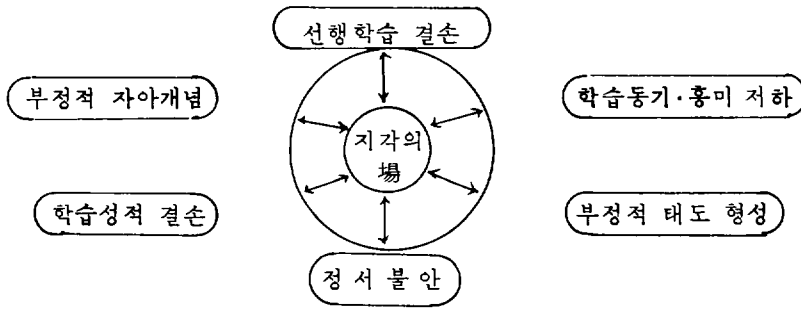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大學教育은 學問性과 職業性의 성과에 매우 회의적이며 부정적이

22) 조문현, “한국고등학생의 진로계획 설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2, p.10.

23) 강무섭외, “학생의 진로결정과정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1984, p.52.

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밝혀볼 수 있으나 미국의 고등교육 수월성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팀²⁴⁾은 대학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 가지 조건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학생들의 自發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참여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불안정한 진로유형에 속한 학생은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전공분야에 대한 흥미나 관심, 가치가 낮을 것이며 결국 불만족하게 되어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학업부적응의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우나 Lazarus²⁵⁾는 적응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 ‘심리적 불편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욕구 또는 동기가 저지되고 目標志向的 행동이 차단된 욕구좌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소속된 대학·학과와의 관계가 심리적으로 不調和, 不均衡 상태에 놓이게 되어 학업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

만일 학생 자신이 대학에 입학해야겠다는 맹목적 의욕만이 앞서 적성에도 맞지 않고 포부에도 관계 없는 전공분야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그가 접하게 되는 교육환경은 脆弱的 教育環境 (deprived educational environment) 속에서 학업생활을 하게 되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즉 학교교육을 받음으로 기대되는 장래의 경제적 보상이 脆弱하다고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⁶⁾ 또한 목표지향적이지 않은 전공학과에서의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학습동기와 흥미가 저하하게 될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은 자신의 학과와 전공분야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과 갈등으로 知覺의 場을 형성하게 될 때 좌절이 앞서서 학습의욕을 떨쳐버리는 경향이 있고, 학습의욕의 저하는 학습성취에 영향을 주어 負的 動機를 형성하게 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24) Study Group on the Conditions of Excellenc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Involvement in Learning, "Realizing the Potential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1984, p.17.
 25) R.S.Lazarus, "Adjustment and Personality", 서봉연 (역), 서울: 익문사, 1977, pp.31 ~ 32.
 26) B.S.Bloom,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Y.: John Wiley & Sons, Inc., 1964, p.123.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의 흥미와 의욕의 저하는 學習態度에 영향을 주어 학습에 대한 注意集中이나 학습수행을 방해하게 되어 학습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러한 情意的 領域에서의 단계적인 결과는 모든 認知的 領域의 知覺, 認知思考過程에 영향을 주어 학습성취를 저하시키는데 학습성취의 評價知覺은 否定的 自我概念 형성을 촉진하고, 후속 학습에 영향을 주며 또다시 학습결손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²⁷⁾

Ⅲ. 研究方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결정과정과 관련된 理論과 實態를 연구·분석하였고 아울러 안정된 진로 유형과 불안정한 진로 유형이 학업적응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국·내외 문헌들을 연구·파악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진로선택 결정 경향과 유형, 소속 대학과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제작·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대학교 1,2학년 재학생 239 명으로서 성별, 계열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로 조사하였고, 이 중에서 사용치 못한 설문지와 항목은 제외시켰다.

Ⅳ. 進路選擇·決定過程에 대한 實態分析

대학생들이 자신이 선택·결정한 진로가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거쳐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된 연구결과는 진로계획 추진상에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의 學業適應을 예견해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다닐 대학과 학과를 언제 선택·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表Ⅳ-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계열별, 학년별 모두 80~90% 이상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생 때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계획적으로 진로를 선택·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학년보다는 1학년이,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자연계 학생이 일시적으로 선택·결정하는 경향이 높다.

27) 李敬淑, “대학생의 자아정체 수준과 학습성취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p.16~17.

〈表Ⅳ-1〉 자신의 진로(대학과 학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시기 ()안은 %

내용	구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남	여	1	2	인 문	사 회	자 연
1. 국민 학교	
2. 중 학 교		2 (2.3)	4 (2.6)	3 (1.8)	3 (4.7)	3 (9.1)	1 (3.1)	2 (1.2)
3. 고 1		1 (1.2)	3 (2.0)	2 (1.2)	2 (3.1)	.	1 (3.1)	3 (1.8)
4. 고 2		5 (5.9)	6 (4.0)	5 (3.0)	4 (6.3)	3 (9.1)	2 (6.3)	4 (2.4)
5. 고 3		73 (85.9)	137 (90.7)	155 (92.9)	54 (84.4)	27 (81.8)	27 (84.4)	156 (94)
6. 재 수		4 (4.8)	1 (0.6)	2 (1.2)	1 (1.6)	.	1 (3.1)	1 (0.6)
계		85	151	167	64	33	32	166

〈表Ⅳ-2〉 자신의 대학·학과를 최종적으로 선택·결정하게 된 가장 큰 동기

내용	구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남	여	1	2	인 문	사 회	자 연
1. 경제적 여건 고려		8 (9.8)	28 (18.5)	29 (17.4)	7 (10.8)	9 (24.3)	4 (12.5)	23 (13.6)
2. 생활의 편이성		7 (8.5)	8 (5.3)	11 (6.6)	3 (4.6)	9 (24.3)	1 (3.1)	9 (5.3)
3. 자신의 학력고사 성적		40 (48.8)	86 (57.0)	92 (55.1)	34 (52.3)	12 (32.4)	21 (65.6)	95 (56.2)
4. 대학·학과의 특수성		27 (32.9)	29 (19.2)	35 (21.0)	21 (32.3)	7 (18.9)	6 (18.7)	42 (24.9)
계		82	151	167	65	37	32	169

〈表Ⅳ-2〉는 자신의 대학과 학과를 최종적으로 선택·결정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인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서대로 열거하여 보면, ① 자신의 학력고사 성적, ② 대학·학과의 특수성, ③ 경제적 여건 고려, ④ 생활의 편이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력고사 점수가 학과를 결정하는 1차적인 요인임을 드러낸 것으로서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점수 위주로 선택·결정하는 경향이 높으며, 계열별로 볼 때 인문계(32.4%), 자연계(56.2%), 사회계(65.6%) 순으로 사회계가 점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진로를 선택·결정하게 될 때 他者の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것이 〈表Ⅳ-3〉

〈表Ⅳ-3〉 자신의 대학·학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가장 강했던 영향 요인

내용	구분	성 별		학 년		계 열 별		
		남	여	1	2	인 문	사 회	자 연
1. 부모님의 권유		20 (25.0)	40 (26.8)	42 (25.1)	16 (25.4)	9 (25.7)	5 (14.3)	44 (27.2)
2. 담임선생님의 권유		14 (17.5)	26 (17.4)	35 (21.0)	8 (12.7)	1 (2.9)	12 (34.3)	31 (19.1)
3. 자신의 의지		36 (45)	72 (48.3)	74 (44.3)	34 (54.0)	25 (71.4)	15 (42.9)	68 (42.0)
4. 친구, 형제의 권유		10 (12.5)	11 (7.4)	16 (9.6)	5 (8.0)	.	3 (8.6)	19 (11.7)
계		80	149	167	63	35	35	162

으로서 인문계 학생을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의 약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생 자신의 진로를 他者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진로가 결정된 것을 뜻한다.

V.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학과에 대한 만족도 분석

〈表Ⅴ-1〉 자신이 계획했던 대학·학과와 현재 소속하고 있는 대학·학과 사이의 일치도

내용	구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남	여	1	2	인 문	사 회	자 연
1. 대학과 학과가 모두 일치		13 (15.5)	12 (7.9)	15 (8.9)	12 (18.5)	3 (10.0)	5 (15.6)	16 (9.4)
2. 대학은 일치하나 학과는 다름		12 (14.3)	23 (15.2)	21 (12.5)	11 (17.0)	3 (10.0)	10 (31.3)	21 (12.4)
3. 대학은 다르나 학과는 일치		22 (26.2)	32 (21.2)	34 (20.2)	21 (32.3)	14 (45.2)	4 (12.5)	35 (20.6)
4. 대학과 학과가 모두 불일치		37 (44.0)	84 (55.6)	98 (58.3)	21 (32.3)	11 (35.5)	13 (40.6)	98 (57.6)
계		84	151	168	65	31	32	170

〈表V-1〉은 학생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학과가 원래 계획했던 대학과 학과와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지를 파악한 것이다.

대학과 학과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가 약 30% 이내인 반면, 대학과 학과가 모두 불일치하고 있는 경우가 평균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일치하나 학과가 다르다는 반응은 여학생 15%, 2학년 17%, 사회계 31%로서 자신이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학과에서 학업을 하고 있음을 뜻하며 반대로 학과는 계획된 대로이나 대학이 다른 경우는 남학생 26%, 2학년 32%, 인문계 학생이 45%로서 원치 않는 대학에 다니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表V-2〉 자신이 본대학이나 타대학으로 전과나 전학 희망 유무

내용	구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남	여	1	2	인 문	사 회	자 연
1. 전과나 전학을 하겠다.		40 (47.6)	88 (58.7)	88 (53)	37 (56.1)	15 (48.4)	16 (50)	90 (53.9)
2. " 안하겠다.		44 (52.4)	62 (41.3)	78 (47)	29 (44.0)	16 (51.6)	16 (50)	77 (46.1)
계		84	150	166	66	31	32	167

〈表V-1〉에서 만일 자신이 원했던 대학이나 학과가 아니라면 전과나 전학이 허용될 경우 이에 따른 학생들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表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일 전학이나 전과가 사실로 주어질 경우 ‘전학이나 전과를 하겠다’는 학생은 성별로 볼 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으며 (58.7%), 1학년보다 2학년 학생 비율이 높고 (56.1%), 인문, 사회계 학생보다 자연계 학생이 높다 (53.9%). 이는 〈表IV-1〉에서 나타냈던 바와 같이 대상학생의 94%에 해당하는 학생이 고3 때 순간적으로 진로를 결정했던 결과라 해석되어진다.

〈表V-3〉은 학생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서 성별, 학년별, 계열별 공히 만족하고 있음에 50%, 불만족하고 있음에 약 50%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불만스러운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表 V-3〉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만족도

내용	구분		학 년 별		계 열 별		
	성 남	별 여	1	2	인 문	사 회	자 연
1. 대단히 만족	7 (8.3)	5 (3.3)	8 (4.7)	6 (9.0)	-	2 (6.3)	11 (6.5)
2. 다소 만족	40 (47.6)	64 (42.4)	76 (45.0)	28 (41.8)	14 (45.2)	16 (50)	78 (45.9)
3. 다소 불만족	27 (32.1)	68 (45.0)	67 (39.6)	27 (40.3)	15 (48.4)	13 (40.6)	62 (36.5)
4. 대단히 불만족	10 (11.9)	14 (9.3)	18 (10.7)	6 (9.0)	2 (6.4)	1 (3.1)	19 (11.2)
계	84	151	169	67	31	32	170

앞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만족도 파악에서 불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불만족 이유를 자유반응 형식으로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신이 원했던 대학이 아님
- 학생, 학과들끼리의 분열
- 학내의 분위기가 산만하고 학습에 대한 열의와 성의 부족
- 모든 정보가 늦고 자료제공의 부족
- 교수·학생의 질적 수준이 낮음
- 사고와 생활의 폭이 좁음
- 잦은 학내 시위와 수업방해
- 취업의 어려움과 낮은 취업률
- 참고도서, 시설·설비의 부족, 형식적 실험실습
- 남녀학생 비율의 편중
- 학습태도와 건전한 학풍조성의 결여
- 대학 교과과정과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교과와의 괴리
-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단절적
- 계획성이 없는 학교행정운영과 학생의견 무시
- 각 대학별 특성이 없고 전문인력양성의 실패
- 사회적으로 낮은 인정

〈表V-4〉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학과에 대한 만족도

내용	구분		성 별		학 년 별		계 열 별		
	남	여	1	2	인 문	사 회	자 연		
1. 대단히 만족	15 (17.9)	13 (8.6)	17 (10.1)	12 (18.5)	3 (9.7)	5 (16.1)	18 (10.6)		
2. 다소 만족	44 (52.4)	77 (51)	92 (54.4)	30 (46.2)	15 (48.4)	13 (41.9)	94 (55.3)		
3. 다소 불만족	18 (21.4)	50 (33.1)	48 (28.4)	18 (27.7)	12 (38.7)	12 (38.7)	43 (25.3)		
4. 대단히 불만족	7 (8.3)	11 (7.3)	12 (7.1)	5 (7.7)	1 (3.2)	1 (3.2)	14 (8.2)		
계	84	151	169	65	31	31	169		

학생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학과에 대한 만족 정도는 〈表V-4〉에서 보는 것처럼 약 60 ~ 70%가 만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30 ~ 40%가 불만족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학에 대한 인식보다 학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성별로 보면 소속 학과에 대하여 남자보다 여학생이 불만족 비율이 높으며, 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계가 자연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V-4〉에서 불만족하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자유반응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수, 학생간, 선후배간 거리감 심화
- 실험, 실습 시설의 부족 및 자료부족
- 학과와 교과목, 교수에 대한 흥미 결여
- 교과과정이 낙후되었고 그 운영이 형식적
- 학과 구성원들의 개인주의 팽배
- 전공과목 담당 교수님의 열의 부족
- 취업전망 불투명
- 학과가 성격, 흥미, 적성에 맞지 않음
- 학습방법상의 문제
- 교수방법 및 학과 분위기의 산만
- 전공 지도교수의 부족
- 교수, 학생간 공동체적 노력 결여
- 남학생과 여학생간 性差別

〈表 V-5〉 현재 자신의 대학생활 제반사항에 대한 만족도 (성별)

내용	구분		대단히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대단히 불만족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자신의 학습태도	5 (6.0)	1 (0.6)	15 (18.1)	34 (22.4)	40 (48.2)	74 (48.7)	23 (27.7)	43 (28.3)	83	152		
2. 성 적	2 (2.4)	3 (2.0)	28 (34.1)	44 (28.9)	43 (52.4)	78 (51.3)	9 (11.0)	27 (17.8)	82	152		
3. 교 수 방 법	1 (1.2)	3 (2.0)	18 (22.0)	35 (23.3)	47 (57.3)	89 (59.3)	16 (19.5)	23 (15.3)	82	150		
4. 교수와 인간관계	3 (3.7)	3 (2.0)	23 (28.4)	48 (32.2)	35 (43.2)	70 (47.0)	20 (24.7)	28 (18.8)	81	149		
5. 교 우 관 계	17 (20.7)	17 (11.2)	48 (58.5)	91 (59.9)	15 (18.3)	32 (21.1)	2 (2.4)	12 (7.9)	82	152		
6. 교수·학습시설 설비	1 (1.2)	·	3 (2.0)	17 (11.4)	33 (40.2)	81 (54.4)	45 (54.9)	51 (34.2)	82	149		
7. 행정조직 운영	1 (1.2)	·	5 (6.2)	18 (11.9)	43 (53.1)	87 (57.6)	32 (39.5)	46 (30.5)	81	151		
8. 취 업 전 망	4 (4.9)	2 (1.3)	27 (33.3)	28 (18.5)	26 (34.6)	75 (49.7)	24 (29.6)	46 (30.5)	81	151		

〈表 V-5〉는 학교의 제반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로 파악해 본 것으로서 먼저 자기 자신의 학습태도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만족하고 있음에 24.1%, 불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은 75.9%로서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학습태도를 인정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만족에 23%, 불만족에 77%로 역시 불만족스런 자신의 학습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학습결과로서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심한 불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남학생 63.4%, 여학생 69.1%). 교수방법에 대한 만족정도를 보면 대상학생의 25% 이내의 학생들이 만족한 반면, 약 75%의 학생들이 불만족감을 지니고 있어서 심한 불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또한 교수·학생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약 35% 정도가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약 65%의 학생들은 불만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생·학생간의 교우관계는 약 80%가 만족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수·학습시설 설비에 관하여는 학생들 대부분 (남학생 95.1%, 여학생 88.6%)이 불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행정조직과 그 운영에 관하여서도 남학생의 경우 92.6%가 여학생의 경우 88.1%가 불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취업전망에 대하여서는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남학생 38.2%, 여학생 19.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전망에 불만을 지니고 있다 (불만족: 남학생 64.2%, 여학생 80.2%).

〈表 V-6〉은 대학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학년별로 조사한 결과인데 학습태도에 대하여

〈表 V-6〉 대학생활에 대한 학년별 만족도

내용	구분		대단히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대단히 불만족		계	
	학		년		년		년		년		년	
	1	2	1	2	1	2	1	2	1	2		
1. 자신의 학습태도	6 (3.6)	1 (1.5)	29 (17.5)	17 (26.2)	78 (47.0)	32 (49.2)	53 (32.0)	15 (23.1)	166	65		
2. 성적	5 (2.9)	2 (3.6)	43 (25.3)	26 (39.4)	92 (54.1)	33 (50.0)	30 (17.6)	5 (7.6)	170	66		
3. 교수 방법	1 (0.5)	2 (3.1)	36 (21.2)	15 (23.4)	101 (59.4)	36 (56.3)	32 (18.8)	11 (17.2)	170	64		
4. 교수와의 인간관계	1 (0.5)	5 (7.8)	51 (30.5)	19 (29.7)	79 (47.3)	27 (42.2)	36 (21.6)	13 (20.3)	167	64		
5. 교우 관계	31 (18.5)	10 (15.6)	98 (58.3)	40 (62.5)	30 (17.9)	13 (20.3)	9 (5.4)	1 (1.6)	168	64		
6. 교수·학습시설 설비	·	1 (1.5)	15 (8.9)	6 (9.2)	82 (48.5)	32 (49.2)	72 (42.6)	26 (40.0)	169	65		
7. 행정조직·운영	·	1 (1.6)	17 (10.1)	7 (10.9)	98 (58.3)	30 (46.9)	53 (31.5)	26 (40.6)	168	64		
8. 취업 전망	3 (1.8)	3 (4.6)	43 (25.4)	13 (20.0)	77 (45.6)	24 (36.9)	46 (27.2)	25 (38.5)	169	65		

1·2 학년 모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적에 관하여는 모두 불만족이 높고 1학년이 2학년보다 더 높은 불만족감을 지니고 있다(1학년 71.7%, 2학년 57.6%), 교수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불만족 비율이 높다(1학년 68.9%, 2학년 62.5%),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1·2학년 모두 만족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1학년 76.8%, 2학년 68.1%), 그러나 교수·학습시설 설비에 관하여는 거의 모두가 불만족하며(1학년 91.1%, 2학년 89.2%), 행정조직·운영면에 있어서나 취업전망 모두가 불만족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V-7〉은 계열별로 대학의 제반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것으로 자신의 학습태도에 대하여서는 불만족 경향이 높은 편인데 인문계는 75.7%, 사회계는 75.0%, 자연계는 78.8%로서 75% 이상의 불만족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성적에 관하여서도 약 60% 이상이 불만족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자연계가 71.3%로 높은 불만족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교수방법 역시 불만족 상태가 높는데 인문계 82.9%, 사회계 81.2%, 자연계 75.5%로서 자연계보다 인문·사회계가 높다. 교수·학생간 인간관계에서는 만족보다 불만족상태가 높는데 인문계가 60.6%, 사회계가 71.8%, 자연계가 67%로서 사회계, 자연계, 인문계 순으로 높은 불만족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학생·학생간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인문계 78.8%,

〈表 V-7〉 대학생활에 대한 계열별 만족도

구분 계열 내용	대단히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대단히 불만족			계		
	인문	사회	자연	인문	사회	자연	인문	사회	자연	인문	사회	자연	인문	사회	자연
1. 자신의 학습태도	.	1 (3,1)	5 (3,0)	8 (24,2)	7 (21,9)	30 (18,2)	18 (54,5)	15 (46,9)	82 (49,7)	7 (21,2)	9 (28,1)	48 (29,1)	33	32	165
2. 성적	.	1 (3,1)	4 (2,3)	12 (36,4)	13 (40,6)	44 (26,3)	20 (60,6)	13 (40,6)	92 (55,1)	1 (3,0)	5 (15,6)	27 (16,2)	33	32	167
3. 교수방법	.	.	4 (2,3)	6 (18,2)	6 (18,8)	37 (22,2)	22 (66,7)	21 (65,6)	100 (59,9)	5 (15,2)	5 (15,6)	26 (15,6)	33	32	167
4. 교수와의 인간관계	1 (3,0)	2 (6,3)	3 (1,8)	12 (36,4)	7 (21,9)	51 (31,1)	12 (36,4)	10 (31,2)	86 (52,4)	8 (24,2)	13 (40,6)	24 (14,6)	33	32	164
5. 교우관계	5 (15,2)	6 (18,8)	24 (14,3)	21 (63,6)	19 (59,4)	101 (60,1)	7 (21,2)	4 (12,5)	35 (20,8)	.	3 (9,4)	8 (4,8)	33	32	168
6. 교수·학습 시설 설비	.	1 (3,1)	.	2 (5,9)	2 (6,3)	16 (9,6)	21 (61,8)	17 (53,1)	79 (47,6)	11 (32,4)	12 (37,5)	71 (42,8)	34	32	166
7. 행정조직·운영	.	1 (3,1)	.	4 (11,8)	3 (9,4)	18 (10,8)	20 (58,8)	20 (62,5)	91 (54,8)	10 (29,4)	8 (25)	57 (34,3)	34	32	166
8. 취업전망	1 (3,0)	3 (9,4)	4 (2,3)	7 (21,2)	6 (18,8)	41 (24,6)	16 (48,5)	16 (50)	68 (40,7)	9 (27,3)	7 (21,9)	54 (32,3)	33	32	167

사회계 77.2%, 자연계 74.4%) . 그러나 교수· 학습시설· 설비는 상당히 불만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94.2%, 사회계 학생들은 90.6%, 자연계 학생들은 90.4%의 상당히 높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조직· 운영면에 있어서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만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인문계 88.2%, 사회계 87.5%, 자연계 89.1%) .

취업전망에 관하여서는 전체적으로 불만족 수준이 높으며 인문계가 75.8%, 사회계가 71.9%, 자연계가 73%로 취업의 심각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VI. 要約·結論 및 提言

대학의 존재이유는 학생에 있으며 학생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大學教育에 관한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자유와 현실참여가 高等教育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高等教育이 발전할 수 있는 활로를 찾고 고등교

육을 통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중요한 課題이다.

그러나 학생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문탐구에 대한 열의와 대학교육에의 관심과 그 임하는 태도, 그리고 학습에의 적극적인 참여문제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과 수업의 과중한 부담을 지니고 있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 내적 가치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意思決定過程에 근거하기보다는 점수에 의해 계획성, 의도성이 결여된 채 대학·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대학에 입학해서도 대학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지니는가 하면 성격과 적성에 걸맞지 않는 학과선정으로 불만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학문의 탐구나 학습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또는 피동적이다. 물론 고등교육 기관에 物理的인 環境이나 전통적인 教授·學習 方法이 학생들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소극적·피동적인 학문탐구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시간, 정력, 그리고 노력을 학문탐구 과정에 투입하는 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그들의 진로를 계획할 때 불안정한 진로유형을 지녔던 학생들은 대학에서도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知覺性向을 지녀 그들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시도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확인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진로의 유형에 관한 내용을 조사·파악하였고 2차로 그들이 전반적인 대학생활과 관련한 만족·불만족에 대한 知覺性向을 조사·분석하였다.

239 명의 학생들을 성별, 학년별, 계열별로 구분하여 실시된 조사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생 자신이 지망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는 점이다.

대부분(85% 이상)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지망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한다는 것은 점수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등 심리적 특성에 관계 없이 선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체계적이고 확고한 진로계획을 갖지 못해 학교, 학과에 대한 소속감, 애착심, 자긍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학생들이 지망하고 있는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결정함에 있어서 성적과 타인에 의한 영향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은 학문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능력이나 적성, 그리고 가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전공학문을 터득하려는 학생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그리고 포부와 의지가 배제된다면 4년 동안의 학습과정에 불만

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째로, 많은 학생들이 현재의 소속 대학이나 학과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 불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상자의 약 80% 정도가 불일치함을 보여 주었는데, 대학은 일치하나 학과는 불일치하고 있다거나, 반대로 학과는 일치하나 대학은 다른 경우이다. 이 경우 우려되는 점은 원래 계획했던 학과가 아니라 원치않는 학과에 마지못해 소속하여 있는 경우에 적응상의 문제가 야기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더우기 대학과 학과가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다수의 학생들이 전학이나 전과가 허용된다면 옳기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어서 순간적 일시적으로 진로를 결정했던 학생 본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대학이나 학과에서 이들을 바르고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네째로, 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불만족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이 무계획적이고도 순간적인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결정한 결과 이와 같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는 당연하다. 그러기에 그 이유를 적성·능력을 무시한 무모한 판단이었음을 후회도 한다. 그러나 불만을 지속적으로 지니게 될 때 학습의욕이 저하됨은 물론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부정적인 학교생활과 함께 부적응을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의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생들이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外的 條件에만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學習 態度에 심한 불만족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학습의 결과인 성적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교수방법과 교수·학생간 인간관계가 많은 학생들에게서 불만족스럽게 여겨지고 있어서 교수들에게도 교육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반면에 학생간 교우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학습에 필요한 실험·실습, 시설설비에 대하여 심각할 정도로 부족감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조직이나 그 운영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취업에 대한 전망이 흐리고 불투명한 이유 때문에 불만족한 성향이 매우 높는데 이는 학교교육을 받음으로 기대되는 장래의 경제적 보상이 회의적일 때 학생들이 학교, 학과에 대한 애교심, 자신감이 감소하게 되고 적응상에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미흡한 점은 진로유형이 과연 학생들의 학업적응에 얼마만큼의 영향요인이 되는가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학생들의 불만족과 이에 따라 야기되는 적응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參 考 文 獻

- 강무섭외, 「학생의 진로결정과정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1984.
- 문선재, 「고등교육기관 목적의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 서봉연(역), 「적응심리」, 서울:익문사, 1977.
- 윤정일,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및 질관리」, 한국교육개발원, 1979.
- 이경숙, 「대학생의 자아정체 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이규호, “대학의 이념과 미래의 적응”, 「학생생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70.
- 이형득·김영채, “학업부진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학습습관의 변용 및 자기통제력의 발달이 그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지도상담」, 1973.
- 이형중, 「진로지도론」, 서울:교단사, 1967.
- 장석민외,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1986.
- 조문현, 「한국고등학생의 진로계획 설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2.
- 최용표외, 「진로교육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7.
- 한준상, 「한국대학생의 희생- 대학교육한계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서울:문음사, 1983.
- 허철수, “교교생의 진로선택과 결정의 합리적 방안”,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 8 집, 1986.
- 홍기형·이승우, 「진로지도」, 서울:교육출판사, 1976.
- Bloom, B.S.,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Y.: John Wiley and Sons, Inc., 1964.
- Ginzberg, E.,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Vol. 30, No. 8, 1952.
- Isaacson L.E., “Career Information in Counseling and Teaching,” Boston: Ally and Bacon, Inc., 1977.
- Kuder, F., “Occupational Choice,”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Inc., 1977.
- Lee, J.C.,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of University Students as Related to Career Matur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Florida, Michigan: The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87.
- Reardon, R.C., et al., “Facilitating Career Development,” Illinois: Charles Thomas Publisher, 1975.

Study Group on the Conditions of Excellenc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Involvement in Learning, "Realizing the Pottential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1984.

Super, D.E., "The Psychology of Careers," N.Y.: Harper and Brothers, 1957.

Zaccaria, J.S., "Theories of Occupational Choice and Vocational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1970.